

경기도 천연기념물 노거수 후계목 육성연구

(자체연구, 2013~2015)

최충호

요 약

천재지변이나 인위적 사고에 대비한 유전자 보존 및 후계목 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실시된 천연기념물 노거수 7종의 입목활력 조사 결과, 전기저항값은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천 신대리 백송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엽록소 함량의 경우, 천연기념물 가운데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가 총 엽록소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양주 양지리 향나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30년생 일반 입목과 비교했을 때 고양 송포 백송은 수목원내 일반 입목 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이천 신대리 백송은 일반 입목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와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역시 일반 입목 보다 현저히 높은 엽록소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엽록소 함량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I. 서 론

생활주변의 노거수는 우리 선조들의 삶속에서 명목, 선목, 당산목 등으로 역사적 전설이나 고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거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천연기념물, 지방기념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노거수(이하 천연기념수)는 수목의 분류학적, 유적학적, 육종학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역사성에 있어서도 그 지방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향토적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민을 화합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더욱이 최근 국보 1호인 숭례문의 소실로 문화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내에도 용문사 은행나무 등 많은 천연기념수가 존재하고 있으나, 모두가 노거수인 점을 감안할 때 지역 대표성이나 지역민 단합성의 역할을 하는 천연기념수의 유전자 보존과 후계목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